

# 보도자료



보도 희망일	즉시 보도
문의	기획처 홍보팀 880-5054, 9072 <a href="mailto:snuvr2@snu.ac.kr">snuvr2@snu.ac.kr</a> 행사진행: 총무과 등

배포일: 2024. 2. 26.(월)

## 서울대, 제78회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는 제78회 전기 학위수여식을 2024년 2월 26일(월) 오후 2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210명, 석사 1,798명, 박사 756명 총 4,764명에게 각각 영예로운 학위를 수여한다.

<서울대학교 공식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 유홍림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공동선을 실현하는 협력적 리더십은 다른 전문 분야에 대한 열린 호기심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배려라는 덕목도 요구한다” 며 “따뜻한 마음을 지닌 여러분이 자신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영역과 사람들에게 ‘다가가기(outreach)’ 를 끊임없이 시도할 때 비로소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유총장은 “다양한 만남과 실천 속에서 경계를 뛰어넘는 도전정신과 부단한 자기성찰을 통해 ‘인향만리’ (人香萬里)의 품격을 끊임없이 키워나갈 것” 을 당부했다.

<학위수여식사: 별첨1>

□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판사 퇴직 후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인 권익 보호 활동 및 청년 대상 봉사활동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를 몸소 실천해온 오윤덕 사랑샘재단 이사장(1965년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2023년 서울대 사회봉사상 수상)이

축사 연사로 초청되어 졸업생들에게 ‘선한 휴머니스트’로 성장해 갈 것 등을 당부한다. <축사: 별첨3> 2003년 신림동 고시촌에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한 열린 쉼터 사랑샘’ (이후 ‘사랑샘재단’)의 문을 연 오 이사장은 청년과 고시생 대상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과 청년 공익 변호사들을 발굴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인 등 권익 보호 및 새터민 로스쿨생 장학지원, 아동센터 운영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졸업생 대표 연설자로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청년의 열정을 보여준 음악대학 차윤지씨(작곡과 졸업)가 선정되었다.

□ 주요 식순

- 국민의례, 학사보고, 학위수여식사(총장), 축사(김종섭 총동창회장)
- 졸업생 대표 인사, 축사(오윤덕 사랑샘재단 이사장)
- 학위수여, 상장 수여 등

## 【첨부1】 제78회 전기 학위수여식사(총장)

자랑스러운 우리 서울대학교 박사, 석사, 학사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며 지낸 수많은 날들, 그 과정에서 흘린 땀과 눈물, 남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여러분은 오늘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앞에 더 큰 도전과 과제가 놓여 있더라도, 오늘만큼은 마음껏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자신의 노력을 통해 삶의 중요한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하지만 오늘이 있기까지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지원하고 응원 해준 많은 분이 계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의 성장을 아낌없이 도와주신 가족들, 깊이 있는 가르침으로 학문적,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주신 교수님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항상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신 직원분들과도 함께 감사와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서울대학교의 교육과 연구를 가능케 해준 온 국민의 기대를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학문적 고민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또 한 번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출발하는 학부 졸업생 여러분!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하여 얻은 자랑스러운 결실을 안고 더 넓은 세계로 나서는 석·박사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서울대학교의 졸업생으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누구보다 힘찬 것입니다. 여러분은 팬데믹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며 손색이 없는 잠재력을 키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겠지만, 지금까지 그 래운 것처럼 분명 그 도전을 하나씩 잘 극복해내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각별히 당부하고자 하는 점은 여러분이 각 분야의 전문가로 발돋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 사회와 인류를 위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 정진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세분화와 전문화를 통해 이뤄진 깊이 있는 발전들이 통합과 융합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더 큰 성취를 이끌어내는지 목격해왔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스마트폰의 개발과 진화도, 지난 몇 년간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의 개발과 성장도, 인류의 미래가 달린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도 모두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토대로 이뤄져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날 훌륭한 리더란 단순히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일견 자신의 전공과 멀고 느슨하게 연관되어 보이는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고 협력과 창의적 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리더십은 공동선을 실현하는 협력적 리더십이어야 하고, 이는 다른 전문 분야에 대한 열린 호기심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배려라는 덕목도 요구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여러분이 자신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영역과 사람들에게 ‘다가가기(outreach)’를 끊임없이 시도할 때 비로소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졸업하는 후배들을 위해 축사를 해주실 오윤덕 사랑샘재단 이사장님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50여 년간 법조인으로 활동하시는 동시에, 열린 마음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실천의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양한 만남과 실천 속에서 그리고 경계를 뛰어넘는 도전정신과 부단한 자기성찰을 통해 ‘인향만리’ (人香萬里)의 품격을 끊임없이 키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대학은 한번 사회로 떠나면 돌아올 필요 없는 곳, 그리고 졸업장으로 그 효용이 끝나버리는 임시의 거처가 아닙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또 다른 배움이 필요할 때, 서울대학교의 문은 여러분을 향해 항상 열려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서울대에서 가졌던 배움의 자세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지속적인 배움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서울대학교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의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 【첨부2】 축사(김종섭 총동창회장)

사랑하는 후배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치열한 노력 끝에 학사와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총동창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44만 서울대 동문을 대표해 환영합니다.

이 자리엔 여러분의 부모님을 비롯해 가족 친지, 친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피고 가르쳐 주신 교직원분들도 졸업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지원해 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사를 전합니다.

서울대에 입학하던 때부터 졸업하는 오늘까지 여러분은 주변의 많은 선망과 부러움을 샀을 것입니다. 요즘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의 ‘프리패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후자는 서울대 졸업장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프리패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50여년 전 이맘때쯤, 저도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과연 서울대에서 힘들고 어려운 공부를 마칠 정도라면 세상에 못할 게 없더군요. 서울대에서 받은 최고의 교육과, 스승들이 전수해준 지혜 덕에 많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전공지식이 사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서울대라 인정도 더 받고, 신뢰도 더 받고, 든든한 선후배와 대학 친구들 덕도 종종 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서울대인이라서 가능한 일도 있지만, 하면 안 되는 일과 가지 말아야 할 길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어진 일만 하며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베푸는 데 인색하고 공동체의 고통을 외면하는, 겸손을 잊고 독단과 오만에 빠지는 사람이 서울대인이라면 남들보다 더 큰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졸업장은 다른 학교의 졸업장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공한 삶으로 가는 만능 티켓이 아닙니다. 졸업장이 증명해 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제부터 세상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묻는 질문지입니다.

갓 사회에 진출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말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워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거나,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해서 세상에 이름을 알릴까 하는 고민이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들도 서울대 졸업장의 무게를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오윤덕 사랑샘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시간과 재능을 바쳐 사회

봉사와 공헌에 매진하는 많은 동문 선배들은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실천한 서울대인입니다.

총동창회에도 뛰어난 동문들의 재능을 활용해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동창회에 사회공헌위원회를 만들고,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과 협업해서 사회 소외계층을 돕고, 국제사회에도 재난 재해로 고통받는 곳에 온정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장학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후배가 될 재학생들이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복을 누리기만 하지 않고, 복을 지어서 나누어주는 동창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창회는 앞으로도 44만 동문과 함께 사회 공헌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같은 생각과 뜻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동창회의 문을 두드리 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빛이 될 여러분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후배님들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첨부3】 축사(오윤덕 사랑샘재단 이사장)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끝까지 견뎌낸 완주 참으로 장하십니다. 앞날에 무한한 행운이 있으시기를 축복 드립니다. 학부모님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유홍림 총장님과 대학 교직원 여러분! 천하의 영재들을 시절(時節) 인연으로 품어 섬길 수 있었던 특은(特恩)이 부럽습니다. 그동안의 고귀한 헌신에 경의를 포함합니다.

푸른 꿈으로 가슴 뛰던 검은 머리 흥안 청년이 모교 캠퍼스를 떠난 지도 어언 60 여성상. 저는 청년시절 졸업식 날에 관한 추억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졸업식 날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번뇌가 수험 서적만 한짐 싸 짊어지고 산사로 제 발길을 향하도록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력의 노인에게 졸업식 축사를 맡아달라는 소임이 떨어졌습니다.

본시 모교 졸업식 축사 자리로의 초대는 모교가 졸업식장이라는 옥토를 모처럼 내주면서 새로운 인생길을 떠나는 젊은이들을 위해 한 인간이 인생 일대 통사를 걸고 진정과 정성으로 품고 버려온 씨앗을 한번 마음껏 뿌려보시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보내온 소명일 것입니다. 졸업식장에 못 갔던 미완성의 인생 퍼즐은 60여 성상을 보내고 오늘 졸업식장 영광스런 단상에 서서 축사를 하면서 맞추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중학 시절 전쟁고아 절친이 구속되었을 때 검사가 정상 참작으로 석방해 주어 그 애가 삶의 용기와 희망을 찾게 된 것이 계기가 돼 후에 저도 검사가 돼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겠다는 야무진 결심 때문에 법과대학까지는 간신히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교시절 매우 낮은 청소년적십자(Junior Red Cross)에 가입하게 되면서 앙리 뒤낭(Jean-Henri Dunant)의 전쟁에 대적하는 박애정신과 평화주의 사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죽음의 상처로 절망하고 있던 저는 인간애를 통해 그나마 인류 장래에 대하여 실낱같은 희망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면 박애주의 휴머니즘 사상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싶었던 터였습니다. 대학 생활을 온통 생명경외, 박애 · 평화주의와 같은 휴머니즘 사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위대한 지성들의 사상을 접하고 다양한 활동도 하면서, 훌륭한 교수님들과 입지전적인 친구들과도 교류하며 개인적으로는 휴머니즘 사상에 관한 나름의 연구를 바탕으로 학보와 월간지 및 일간신문 등에 기고를 하는 등 열심을 다하며 보냈습니다. 그 덕에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봉사할 때 자기 상처의 치유도 일어나고 그 결과로 나와 모두가 행복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소중한 경험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조인이 되기 위한 시험공부를 못했으면 취직시험 공부라도 고려해 봄직도 한데 그런 생각은 아예 가져보지 못한 채 대학 4년 졸업식 날짜를 덜컥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어려서부터 생각해온 꿈인 동시에 그것 자체가 막 바로 생업이 된다는 늦철이 비로소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졸업과 동시에 무직자?

그 순간 갑자기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진 듯 형언할 수 없는 자기 혐오감 무력감 같은 부정적 사고가 엄습해 오면서 황금 같은 대학 시절 4년에 전력투구한 이 모든 휴머니스트로서의 연구와 봉사와 인간관계, 그리고 다양한 체험은 졸업의 순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사실에 패닉이 왔습니다. 수험용 기본법률 서적만 싸서 짊어지고 산사길을 홀로 걸어 올랐습니다. 한가하게 졸업식장에 나가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산사에서 죽기 살기로 사법시험 수험생답게 시험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으나 연거푸 낙방을 하였습니다. 낙방이 가져오는 패배의 고통은 횡수가 누적되면서 눈덩이처럼 커져 갔고 그 와중에 폐결핵이란 치명적 복병을 맞닥뜨리게 되었으며, 가계도 수험공부를 장기간 버틸 여력이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제도권 밖 절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져 끝내 벗어날 길 없는 광야 별을 고립무원의 극한상황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정처 없이 탈진 절규하며 헤매야 하는 처량한 이른바 ‘고시 낭인’ 방랑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꿈같이 흘러버린 지난날의 캠퍼스 라이프 4년이 소년 시절 전쟁터에서 본 죽어간 생명들이 그토록 살아보고 싶어 했을 바로 그 ‘내일’ 이었음도 뒤늦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합격의 행운을 만나 죽음으로 끝날 뻔했던 적막 광야를 가까스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치열했던 경쟁의 현실을 탈출한 후 3-4대를 판사 생활로 넘기면서 젊은 날의 꿈도 되살아나고 일상과 가정·직장 생활도 점차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5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광야로부터의 탈출이 본인이 잘났거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가까이서 혹은 멀리서 알게 모르게 운명같이 다가왔던 슬한 선한 인연들의 도움의 덕이었다는 뒤늦은 자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변호사로 전직을 하였습니다. 구속된 죄수들을 구치소로 찾아가 직접 대면하게 되면서, 내겐 법대 위의 판사 시절에 못 느꼈던 남의 얘기를 잘 듣고



공감해주는 은사가 내면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조금은 놀랐습니다. 구치소에 접견을 갈 때 가방에 필기구 외에 죄수들의 눈물을 닦아줄 휴지를 한가득 채워서 갔습니다. 이들의 한 맺힌 눈물의 호소를 인내하며 잘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면서, 죄의 회개만이 아니라 이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도 보듬어 주는 보람을 얻을 수 있음은 미처 예상치 못했던 기쁨이었습니다.

동시에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어린 날 전장이 남긴 주검을 목도하면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와 시험의 연속된 낙방으로 받았던 실패의 상처로 인한 아픔도 서서히 씻겨 나가는 느낌이 들곤 하였습니다. 변호사 생활도 밤늦게 집에 들어와 잠만 자고 새벽에 업무 현장으로 내닫는 워커홀릭(workaholic)의 생활이었습니다. 눈 깜짝하는 사이에 어느덧 7-8년이 지나고 5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봉사의 대상은 어떻게 정하고 무엇을 가지고 봉사를 할 것인가? 젊은 날 고학력을 구비하고도 경쟁에서 좌절하고 일생 광야를 끝내 헤어나지 못한 채 제도권 밖에서 죽음 같은 고통 중에 방황하고 있을 젊은 날 자신의 초상을 닮은 청년들이 자꾸 눈에 밟혀왔습니다.

그렇다면 멀리서 봉사의 대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어제의 바로 내가 절규하며 고통하던 그곳, 시험에 붙고 나서는 죽어도 되돌아보기 싫을 만큼 지긋지긋했던 그 절망의 바로 그 땅으로 과감히 찾아 들어가자. 죽음 같은 산고를 치른 어머니는 자식을 살리려고 불구덩이에도 뛰어들지 않던가? 더욱이 내겐 그럴 일도 없을 터인데 못 뛰어들 이유가 무엇인가.

힘은 비록 미약하고 벌어놓은 자금은 적지만 젊은 날 저들과 같은 고초를 겪었던 유경험자로서 그때 쌓아놓은 그 고통 총량과 그동안 법조의 재조 재야 직역에서 다소간 쌓은 전문 소양도 보태서 고통으로 친숙했던 제도권 밖 황막한 광야로 되돌아가자. 그곳 한 귀퉁이에 옹달샘을 파고 옹달 구멍가게 ‘사랑샘’을 세우자. 시험이란 생존경쟁에 한때 낙방했다는 이유만으로 절규하며 방황하다 탈진하여 쓰러져 숨넘어가고 있는 갈급한 청년들을 찾아 나서서 물 한 바가지라도 떠서 저들의 목마름을 달래주고 다친 마음의 상처도 추슬러주고 제 갈 길 찾아 감연(敢然)히 떠나도록 지팡이 하나 둘러메고 월하빙인의 역할이라도 감당해야겠다는 자성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더 이상 망설일 것 없이 무조건 청년들의 실패의 고통이 넘쳐나는 대표적인 광야 ‘이 땅’ 신림동 고시촌을 찾아 들어가 100평 규모의 건물을 임차하고 “이땅의 청년들을 위한 열린쉼터 ‘사랑샘’ ”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강당, 차실, 명상·기도실, 상담실 등을 꾸미고 가까이서 멀리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강연, 상담, 명상·기도, 외국인 수도회 영어 미사, 차도와 떼제 공동체 기도, 주말 성지 산행 등 닥치는 대로 고통 중에 방황하는 청년들과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런 광야 길 없는 길을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제도권 밖 고학력 청년들에 대한 부조 활동은 10년 후 「재단법인 사랑샘」으로 발전하여 사랑샘의 사회공헌 실천정신에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와 공익변호사 그리고 후원자들의 동참에 힘입어 그 활동 영역을 법률복지 전반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래의 제도권 밖 고학력 일반 청년 부조 외에, 최근 새로 제도권 밖으로 유입되며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에 의하여 평생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의 명예를 지게 된 너무나 아깝고 애석한 그러나 그 누구도 따듯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기 어려운 이 나라의栋梁지재(棟梁之材) 전문 학력 청년들 이른바 신중 ‘고시 낭인’을 보듬는 「새로운 꿈을 키우는 마중물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시대, 특히 ChatGPT의 등장으로 생성형 AI 기술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인류사 전반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우리나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진입하고 있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는 어느 분야에서나 근면 성실 인내로 고양된 양질의 인품과 최고 학력의 능력을 갖춘 가까운 청년 인재들도 불채용 불합격과 같이 탈락 실패자가 압도적으로 많도록 설계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기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인재를 국가의栋梁으로 모처럼 잘 키워 놓고도 경쟁에서 실패할 경우 성공에는 박수를 칠 망정 실패를 보듬는 문화가 지극히 미약합니다. 실패를 하고 제도권 밖 광야에 밀린 고학력 청년들은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복지 시스템하에서 부조의 대상으로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가정은 물론 국가 사회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지경으로 방치됩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도처에서 경쟁으로부터 탈락한 최고학력 엘리트 청년들이 어떤 계층의 사람들 보다 실패 좌절로 정신적 고통을 극심하게 겪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모두가 서로 껄넘치 않는 ‘불편한 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주는 조개가 상처의 아픔을 품어 안아 견뎌내야만 얻어지는 잉태의 정수입니다. 뜻을 세운 사람이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실패의 아픔을 끝내 견디고 이겨내서 그 고통을 먹고 자란 진주를 불퇴전의 동력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실패의 경우를 만나더라도 실의에 빠지지 말고 보다 새로운 창조적인 향로(向路)를 찾아 나가도록 우리 모두가 위로 격려에 인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역경 중일지라도 페이스메이커(pacemaker)의 조력도 마다 앓음으로써 마침내 모두가 승자의 기쁨과 열매를 공유하는 선한 휴머니스트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 후반에 연민 하나만 가지고 멋모르고 뛰어든 천방지축의 봉사활동에서 그동안 시행착오와 고생이 없었다고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연민 때문에 벌인 행위가 도리어 제 자신이 청년기에 입은 상처만이 아니라, 유소년기에 겪은 전쟁 참화가 남긴 깊은 내상까지도 어느덧 치유받고 있었음도 뒤늦게 인지하게 된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봉사의 은총입니다. 고생하며 타인의 아픔을 연민으로 공감하면서 나눈 조그만 사랑이 진정한 행복임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꽃다발의 향기는 이것을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어 건네는 사람이 그것을 받는 사람보다 뜻밖에 먼저 맡게 되는 것은 은총입니다. 봉사활동 과정에서 너무나 소중한 인연들도 만나 가까워서 혹은 멀리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재물을 모으면 높은 장벽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가두지만, 재물을 나누면 험난한 세상 의롭고 선한 이웃에 둘러싸여 밝고 너른 세상을 함께 사는 신비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비상을 꿈꾸는 나비는 알을 깨고 나온 애벌레 시절 기어서 공간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높은 곳으로 수직 상승 이동하여 정상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안주하며 뿔내지 않습니다. 홀로 그러나 한사코 높은 곳에 고치를 틀고 암흑 속에서 흑독한 시련 기간을 인고로 견뎌낸 연후에야 비로소 찬란한 날갯짓을 하여 비상의 환희를 누리는 나비가 됩니다. 나비는 날갯짓 비상을 통해 지상에 붙박혀 있는 꽃들을 찾아가 꿀을 따기도 하는 동시에 꽃들에게 결실의 희망을 품도록 사랑으로 꽃가루를 날라주며 영원한 우주 창조역사에 동참하는 영생의 보람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

사랑하시라 ! 뜨겁게 사랑하시라 ! 영원히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